

보도일시: 2018. 8. 13.(월) 조간 (누리망·방송은 8. 12.(일) 09:00시 이후 보도)

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

경찰청 브리핑 [www.police.go.kr](http://www.police.go.kr)



총경(승) 이 영 철	담당 경정 이용상	2018년 8월 9일
일반 02-3150-0160, 경비 0160	일반 02-3150-0161, 경비 0161	

## ‘경찰 김 구’를 아시나요?

– 경찰청, 임시정부 경찰 발굴·현양 등  
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–

- 정부가 내년 「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」을 맞이하여 대대적인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, 경찰청에서도 경찰 차원의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-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전담팀을 꾸려 경찰과 관련된 기본적인 자료 수집과 연구를 활발히 진행해 왔으며, 현재 기념사업을 위한 세부 과제들을 검토 중이다.
- 앞으로 학계·언론계 또는 독립유공자 후손 등 전문성·상징성이 있는 민간 전문가와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「기념사업 추진위원회」를 발족하여 사업추진을 본격화할 예정이다.
- 경찰의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부분은 백범 김구 선생이 초대 경무국장을 지냈던 ‘임시정부의 경찰’ 현양과 관련된 내용이다.
- 임시정부에도 내무부 산하 경무국을 중심으로 연통제 경무사, 상해교민단 의경대, 경위대 등 경찰 조직이 있었다.

- 임시정부 경찰은 실제로 임시정부 요인 경호와 청사 경비와 같은 임시정부 수호 임무 외에도 교민 동포를 보호하거나 일제 밀정을 차단하고 일제 침략자·반민족 행위자를 처단하는 등 주로 오늘날 경찰의 경비·경호·정보·보안 기능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.
- 특히, 독립운동의 거두인 백범 김구 선생이 초대 경무국장을 맡아 임시정부 경찰활동의 기틀을 확립했고, 나석주·유상근 의사 등 많은 임시정부 경찰요원들이 항일 무장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.

□ 오는 8월 12일은 백범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으로 임명되어 본격적으로 임시정부 경찰의 구성을 시작한 날이다.

- 하지만, 백범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이었다는 사실 등 임시정부 경찰에 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.
- 이에 경찰청에서는 이번 기회에 임시정부 경찰의 존재를 널리 알리고 민주·평화·인권 등에 임시정부의 핵심가치와 김구 선생이 경찰에게 남긴 “애국·안민의 민주경찰”의 당부를 경찰정신의 덕목으로 이어나가겠다는 생각이다.

※ 김구 선생 당부: 경찰기관지 민주경찰 창간호(1947. 6. 20.) 축사

□ 한편, 경찰은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의 현대사 속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불의에 맞선 민주화 유공 및 의인 경찰을 발굴하여 현양하는 사업도 의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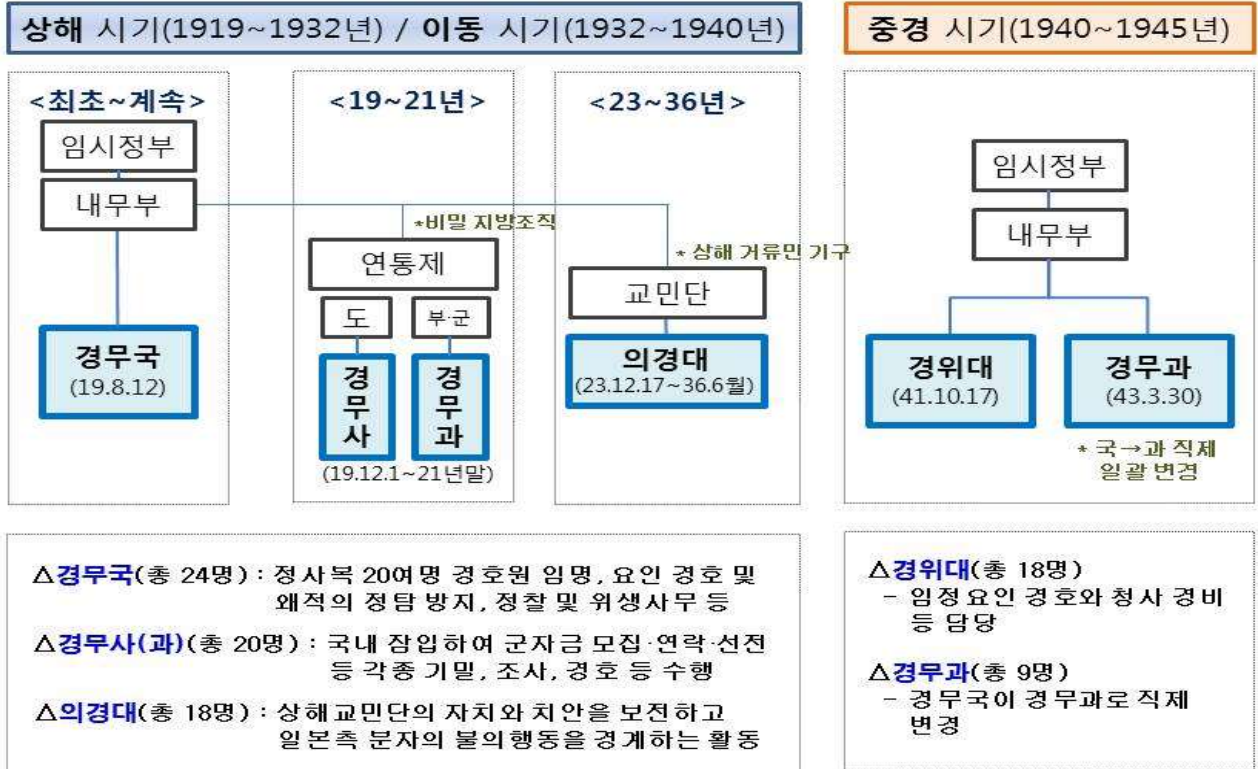
붙임: 임시정부 경찰 관련 자료



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「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 T/F」 경정 이용상(☎ 02-3150-016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# ‘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찰사’ 개요

## □ 임시정부 경찰조직 ( 가 경찰에 해당)



- 1919. 4. 25, 「대한민국 임시정부 장정」 공포로 임시정부 경찰조직인 내무부 경무국 직제와 분장사무가 처음 규정되었고,
  - 같은 해 8. 12, 초대 경무국장 김구 임명부터 구성이 시작되었음
    - ※ 「대한민국임시정부장정」은 1919. 11. 5, 같은 성격의 법률인 「임시 관제」로 대체
- 경찰조직은 내무부 산하 경무국(과)과 함께 연통제 산하 경무사(과), 대한교민단 산하 의경대, 중경 시기 경위대 등이 해당되며
  - 임시정부 요인경호·청사경비 등 임시정부를 수호하고 밀정 처단 등 주로 現 경비·경호·정보·보안 기능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음

“남의 조계지에 붙어사는 임시정부니만치, 경무국 사무는 현재 세계 각국의 보통 경찰 행정과는 달랐다. 그 주요임무는 **왜적의 정탐활동을 방지**하고, **독립운동사의 투항 여부를 정찰하여 왜의 마수가 어느 방면으로 침입하는가를 살피는 것이었다.** (백범일지 中)”

## □ 임시정부 경찰 요원 → 총 89명 확인



- 임시정부 경찰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정착 시기인 상해 초기 및 중경 시기에 가장 활발한 인사가 있었고,
- 현재까지 △ 경무국(과) 33명 △ 연통제 20명(경무사장 3·경감 17) △ 의경대 18명 △ 경위대 18명 등 총 89명이 확인됨

## □ 임시정부 경찰의 활약상

- 초대 경무국장 김구 선생은 임시정부 경찰활동의 기틀을 정립, 일제의 갖은 공세로부터 임시정부를 수호하여 임시정부 초기 성공적 정착에 기여
    - 사실상 임시정부 기간 내내 경찰활동을 실질적으로 계속 지휘하였고,
    - 임시정부의 주석으로서 일제 강점기 민족정신을 고양하고 불굴의 독립의지를 확립시키는 등 독립운동의 거두이자 민족의 지도자였음
  - 또한, 경무국 나석주 의사가 식산은행 등에 폭탄 투척후 자결하였고, 의경대원 유상근 의사는 관동군사령관 폭살 계획중 체포되어 순국하는 등
    - 임시정부를 수호하는 것은 물론이고, 친일파 처단·독립운동자금 모금 등 항일 비밀공작·무장투쟁에 많은 활약을 하였음
- ※ 정부수립 후 현재까지 독립운동 유공으로 89명 중 54명에 '건국훈장' 추서



【경무국장 시절 김구】

경찰조직	상해시기(1919~32)		이동시기(1932~40)	중경시기(1940~45)
	1919	1926	1932	
경무국	 <설치>			
	<p><b>(최초 구성)</b> 1919. 4. 25. 「대한민국 임시정부 장정」 제정(제44조 경무국) 1919. 8. 12. 초대 경무국장 김 구 임명</p> <p><b>(법령 대체)</b> 「대한민국임시관제」(1919.11.5.) 제2절 내무부(內務部) 제5조 <b>경무국(警務局)</b>은 다음 사무를 장리함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행정경찰(行政警察)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고등경찰(高等警察)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도서출판·저작권에 관한 사항</li> <li>4. 일절 위생(衛生)에 관한 사항</li> </ol> <p><b>(인물)</b> 총 24명 경무국장 4명, 경무국참사 2명, 경호원 18명</p> <p><b>(활동)</b> 경무국장은 당시 정복과 사복 경호원 20여명을 임명하여 업무를 수행, 왜적의 정탐활동 방지, 독립운동자의 투항 여부를 정찰</p> <p><b>(제복)</b> 경호원 복장은 가슴양편에 주머니를 부착한 흑색단추(hil금) 두줄</p>			
연통제	1919	1921	이동	중경
	 <설치> <해체>			
<p><b>(설치)</b> 1919. 7. 10. 연통제 설치, 같은 해 12. 1. 연통제 內 경찰조직 설립 2개월 만에 국내에서 일본에 발각, 1921. 8월 47명의 연통제 들이 체포된 함북연통제 사건 이후 1921년 말 사실상 해체</p> <p><b>(법령)</b> - 「임시지방연통제」(1919. 12. 1.) 임시지방연통제 제10조, 제18조 <b>경감(警監)</b>은 경찰 及 위생사무(衛生事務)에 종사</p> <p>- 「내무부령 2호」(1919. 12. 5.) 도사무분장규정 <b>6조 경무사에 기밀과와 경호과를 둠, 기밀과(機密科)에서는 다음 사무를 관장함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경호원(警護員)의 복무 급 규율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범죄수색 及 검거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적(敵)의 신시설(新施設)에 관한 사항</li> <li>4. 적(敵)의 경찰 及 계엄에 관한 사항</li> <li>5. 적(敵)의 용하는 유혹방법 조사(調査)에 관한 사항</li> <li>6. 기타 적정정찰(敵情偵察)에 관한 사항</li> </ol> <p><b>경호과(警護科)에서는 다음 사무를 관장함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경호구역(警護區域) 及 배치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인구(人口) 기타 조사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신문잡지 기타 인쇄물에 관한 사항</li> <li>4. 집회(集會) 及 결사(結社)에 관한 사항</li> <li>5. 부중(府中) 경호(警護) 에 관한 사항</li> </ol>				

	<p>6. 적의 행위를 방조하는 불량자 조사에 관한 사항 7. 적에 의세하는 재산가 조사에 관한 사항</p> <p>- 「내무부령 2호」(1919. 12. 5.) 부군처무규정(府郡處務規程) <b>4조 경무과 (警務科)에서는 다음 사무를 관장함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범죄수색 및 검거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적(敵)의 신시설(新施設)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적(敵)의 경찰 급 계엄에 관한 사항</li> <li>4. 적정정찰(敵情偵察)에 관한 일절의 사항</li> <li>5. 적(敵)의 용하는 유혹방법 조사(調查)에 관한 사항</li> <li>6. 적의 행위를 방조하는 불량자 조사에 관한 사항</li> <li>7. 적에 의세하는 재산가 사찰(査察)에 관한 사항</li> <li>8. 인구(人口) 기타 조사에 관한 사항</li> <li>9. 신문잡지 기타 인쇄물에 관한 사항</li> <li>10. 집회(集會) 및 결사(結社)에 관한 사항</li> <li>11. 서(署)·청(廳) 中 경호에 관한 사항</li> </ol> <p>(인물) 총 20명 연통제 경무사 3명, 경감 17명</p> <p>(활동) 연통제는 국내에서 활동한 군자금 모집·연락·선전 기관 그 중 '경무사'는 기밀과·경호과 두어 경호와 범죄수색·적정 정찰, 경호 업무 수행 '경감'은 경찰 및 위생업무에 종사</p>							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의경대</b></p>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 style="width: 50%;">1923</td> <td style="width: 50%;">1936</td> </tr> <tr> <td>&lt;설치&gt;</td> <td>&lt;해체&gt;</td> </tr> </table> <p>(설치·해체) 1923. 12. 17. 설치, 1936년 사실상 해체</p> <p>(사료) - 상해교민단에서 자치와 치안을 보전하고 일본측 분자와 불의행동을 하는 자를 경계하며 중지하기 위해 <b>의경대</b>를 두기로 계획을 세워 지난 17일 교민단의사회에서 <b>의경대조례</b>를 통과하고.. (동아일보, 1924. 1. 2.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최천호는 교민단, 의경대, 임시정부경호원으로서 우리 관헌의 밀정을 물색하거나 혹은 새 도래자의 휴대금품 조사, 횡탈하는 등 감히 모든 흉악 행위를 하는 한편 의열단과 연락하여 폭탄 반송의 임무를 맡았다는 정보가 있는 인물임(日총독부, 1924. 10月)</li> <li>- 의경대는 석현구, 유인발의 암살미수 등을 감행한 결과 이 주동자에 대한 수사가 엄중해졌기 때문에 의경대장 박창세와 대원들은 대부분 진강 방면으로 도피하고 대원 이수봉과 김철은 재상해일본영사관 경찰에게 체포되기에 이르러 <b>사실상 활동 중지상태에 빠졌으며...</b> (日사상회보, 1936.6月)</li> <li>- 임시의정원 의원 심사 관련 , 내무부와 민국의경대에서 <b>인사 검증한 기록 존재</b>(임시의정원 13회 속기록, 1924. 2~4月)</li> </ul> <p>(인물) 의경대장 및 대원 총 18명</p>	1923	1936	<설치>	<해체>				
1923	1936								
<설치>	<해체>							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이동시기</b></p>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 style="width: 33%;">상해</td> <td style="width: 33%;">1932</td> <td style="width: 33%;">1940</td> <td style="width: 33%;">중경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&lt;이 동 시 기&gt;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	상해	1932	1940	중경			<이 동 시 기>	
상해	1932	1940	중경						
		<이 동 시 기>							

	<p>(사료) 지역 한인을 대상으로 지속적 경찰활동이 가능했던 상해-중경 시기와 달리 이동시기 임시정부 경찰에 대한 사료는 미비</p> <p>(김구행적) - 4.29 이후(윤봉길의거) 일본 외무성, 조선총독부, 상해주둔 총사령부 3부 합작으로 나에 대해 현상금 60만원이 걸렸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아버님 외가 성을 따서 '장(張)'으로 하여 '장진구' 또는 '장진'으로 행세하였다.</li> <li>- 나는 부득이 가흥 여자 뱃사공 주애보와 부부행색으로 선중생활(船中生活)을 계속하였다(백범일지)</li> </ul>		
경무과	상해	이동	1943~ ..... <설치>
	<p>(설치) 1943. 3. 30. 설치</p> <p>(법령) 「대한민국잠행관제」(1943. 3. 30.) 2절 내무부 4조 <b>경무과(警務科)는 좌개 사무를 장리함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헌정주비(憲政籌備) 국회의원 선거급 및 지방자치(地方自治)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국적급(國籍及) 인구조사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징병(徵兵)과 징발(徵發)에 관한 사항</li> <li>4. 행정경찰(行政警察)에 관한 사항</li> <li>5. 고등경찰(高等警察)에 관한 사항</li> <li>6. 도서출판(圖書出版) 저작권, 집회·결사에 관한 사항</li> </ol> <p>(인물) 총 <b>9명</b> 경무과장 3명(과장은 경위대장과 겸직하는 경우가 多), 경무과원 6명</p> <p>(기타) 내무부 경무국(警務局)이 내무부 <b>경무과(警務科)</b>로 직제 변경</p>		
경위대	상해	이동	1941~ ..... <설치>
	<p>(설치·해체) 1941. 10. 17. 설치(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 71호) 해체시기 미상</p> <p>(법령) 임시정부 <b>경위대규정(臨時政府警衛隊規程)</b></p> <p>제1조 경위대는 내무부에 직할하여 일절 경위사의(警衛事宜)를 변리(辨理)함</p> <p>제2조 경위대에 좌렬 직원을 치함 대장(隊長) 대부(隊副) 각 일인, 대원 약간인</p> <p>제3조 대장은 내무부장의 지휘를 승하여 대무(隊務)를 장리하여 소속 대원을 지휘·감독함</p> <p>제4조 대부는 대장을 보좌하며 대장이 유고할 시는 그 임무를 대리함</p> <p>제5조 대원은 대장의 명령을 승하여 대무에 종사함</p> <p>(인원) 경위대장 및 대원 총 <b>18명</b></p> <p>(활동) 임시정부 요인과 청사 경호 담당(김구 선생 경호 ▶ 경위대장 윤경빈, 광복 후 김구 선생 비서 ▶ 경위대원 출신 선우진)</p>		

## 참고 2

# 임시정부 경찰조직 직제근거 및 명단출처

### □ 경 무 국

직제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대한민국 임시정부 장정(1919. 4. 25) 제44조</li><li>•대한민국 임시관제(1919. 11. 5) 제3절 제2장 제5조</li></ul>
명단출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대한민국 임시정부 공보</li></ul>

### □ 연통제 경무사·경무과

직제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국무원령 제1호 임시정부연통제(1919. 12. 1) 제7조</li><li>•내무부령 제2호 도사무분장규정(1919. 12. 5) 제6조</li><li>•내무부령 제3호 부군처무규정(1919. 12. 5) 제4조</li></ul>
명단출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각종 재판기록 등 연관 자료 추출</li><li>※ 비밀 지방조직 성격상 통상적 형태의 인사기록 발견 곤란</li></ul>

### □ 의 경 대

직제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상해 교민단의사회 의경대 조례(1923. 12. 17)</li><li>※ 조례 원본 미발견, 당시 동아일보 기사로 유추</li></ul>
명단출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의경대 인사 관련 당시 신문기사 및 일제경찰 보고서 등</li></ul>

### □ 경 무 과

직제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대한민국 잠행관제(1943. 3. 30) 제4조</li></ul>
명단출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대한민국 임시정보 공보</li></ul>

### □ 경 위 대

직제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대한민국 잠행관제(1943. 3. 30) 제6조</li><li>•임시정부 경위대 규정(1941. 10. 7)</li></ul>
명단출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•대한민국 임시정보 공보</li></ul>



### □ 김 수 (초대 경무국장 / 의경대장)

#### ○ 생애·이력

- 1876년 황해 해주 출생~1949년 사망
- 경무국장(1919. 8. 12.~1921. 5월)
- 의경대장(1932. 1. 11.~1932. 7월)



#### ○ 활약

- 1919년 8월 초대 경무국장으로 임명되어 경무국 경호원 20명을 선발하는 등 임시정부 경찰 활동의 기틀을 정립하고 사실상 임시정부 경찰 활동을 실질적으로 시종일관 지휘
- 1923년 상해교민단 의경대를 설치하는 한편, 1926년 임시정부 국무령, 1940년 임시정부 주석 등 독립운동의 거두로 활동

- 상훈 :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추서

### □ 유상근 (의경대원)

#### ○ 생애·이력

- 1910년 강원 통천 출생~1945년 사망
- 의경대원(1932. 2월~1945. 8. 14.)



#### ○ 활약

- 1932년 22세의 나이로 다롄에서 영국 국제연맹조사단을 마중하는 日 관동군사령관 및 만주철도 총재 폭살 계획을 추진하다가 체포
- 무기징역이 언도되어 다롄 및 뤼순 형무소에서 13년간 투옥 중 1945년 8월 14일 일제 패망 하루 전날, 옥중에서 살해당함

- 상훈 : 1968년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

## □ **사석주** (경무국 경호원 / 의경대원)



### ○ 생애·이력

- 1892년 황해 재령 출생~1926년 사망
- 경무국 경호원 및 의경대원(1924. 6. 23.~미상)

### ○ 활약

- 1919년 3·1운동 직후 '6인조 권총강도단'으로 위장, 독지가들에게 자발적 군자금 모금 중 일제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중국으로 망명
- 1926년 12월 국내로 잠입하여 식민수탈의 근거지였던 식산은행과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하였으나 불발하였고, 출동한 일제경찰들과 총격전을 하다 수명을 사살한 후 자결

※ 현장에서 군중을 향해 “나는 조국의 자유를 위해 투쟁했다. 2천만 민중아, 분투하여 쉬지 마라!”고 외치고 자결

- 상훈 :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 추서

## □ **노종관** (경무국 경호원 / 의경대장)



### ○ 생애·이력

- 1894년 황해 안악 출생~1939년 사망
- 경무국 경호원(1921년~1939. 6월)
- 의경대장(미상~1931. 10. 31.)

### ○ 활약

- '조선일보' 및 '동아일보' 황해도 안악지부 기자로 활동 중 임시정부의 독립자금 모금원 흥완기가 체포되자 구출을 시도했지만 실패
- 이후 1921년 상해로 망명하여 경무국에 투신, 1922년 1월 김구의 지시로 오면직과 함께 임시정부 자금을 유용한 김립을 살해
- 1938년 1월 상해 日영사관 경찰축탁 근무를 하던 친일파 이갑녕을 암살하려는 사건으로 체포, 1939년 6월 해주에서 투옥 중 순국

- 상훈 : 1995년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

## □ 김 용 원 (2대 경무국장)



### ○ 생애·이력

- 1892년 충남 대전 출생~1934년 사망
- 경무국장(1921. 5월~1924. 12. 24.)

### ○ 활 약

- 1919년 「대동단」의 비밀단원으로 나창헌 등과 왕손 ‘이강’을 상해 임시정부로 탈출시키려다 일제경찰에게 발각되어 상해로 피신
- 1924년 7월 병에 걸려 요양차 귀국하고서 군자금 모금을 하다 일제경찰에 체포되었는데, 병보석으로 출감하고도 다시 모금활동으로 체포되기를 반복하다 옥고 후유증으로 1934년 7월 순국

- 상 훈 :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

## □ 나 창 헌 (4대 경무국장)



### ○ 생애·이력

- 1896년 평북 희천 출생~1936년 사망
- 4대 경무국장(1925. 11월~1926. 4월)

### ○ 활 약

- 1919년 「대동단」의 비밀단원으로 김용원 등과 왕손 ‘이강’을 상해 임시정부로 탈출시키려다 일제경찰에게 체포되어 징역 3년 복역
- 1922년 상해로 망명, 임시정부 외곽단체인 「한국노병회」 창립에 참여하고, 1926년 1월 임시정부 비밀 결사조직인 「병인의용대」 창설
- 1926년 4월 상해 日 영사관 폭탄투척 계획을 세우고 두 동생과 행동하려다 사전에 탄로나 항주로 피신하였다가 1936년 중경에서 사망

- 상 훈 :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

## □ **박 창 세** (경무국 참사 / 의경대원)



### ○ 생애·이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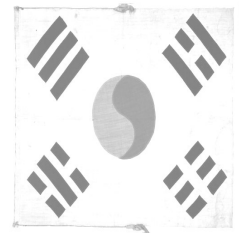
- 1898년 평북 창성 출생~1965년 사망
- 경무국 참사(1925. 4. 28.~미상)
- 의경대원(1934년~미상)

### ○ 활 약

- 1926년 나창헌 등과 임시정부 전위조직인 「병인의용대」를 조직하고, 1928년 중국 장쑤성 경찰학교 교관으로 활동
- 1926년 장진원 등과 日총영사관 습격, 일제의 內山(독립운동가 변절 공작)과 앞잡이 최동윤을 총살하고, 체포된 장진원 구출 중 수류탄으로 일본경찰 1명 중상, 고등계 형사 판사처 야습으로 일본경찰 1명 사살
- 1927년 4월 김창근 등과 日영사관 창고를 폭파, 일본경찰 1명에게 중상을 입히고, 밀정 2명을 총살
- ※ 1935년 남목청 사건(내분으로 김구 등 임정요인 저격 사건) 배후로 체포후 석방

- 상 훈 :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

## □ **이 경 산** (의경대원)



### ○ 생애·이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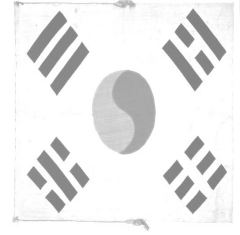
- 출생·사망 미상
- 의경대원(1933년~미상)

### ○ 활 약

- 1933년 8월 의경대장 박창세의 지시로 이운환과 함께 일제 밀정인 석현구와 유인발을 사살 후 광둥으로 도피하였다가 체포

- 상 훈 : 별도 정부포상 없었음

## □ 이 덕 주 (의경대원)



### ○ 생애·이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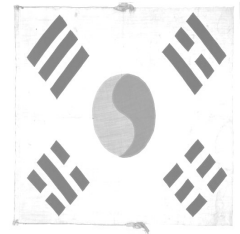
- 1908년 황해 신천 출생~1935년 사망
- 의경대원(1932년~미상)

### ○ 활약

- 1926년 중국으로 망명, 김구가 결성한 한인애국단의 단원으로 활동하였고, 1932년 임시정부 의경대원으로 활동
- 1932년 3월 김구의 지시로 조선총독을 비롯한 일본 요인 암살을 위해 유진만과 함께 무기를 소지하고 국내 잠입하였으나, 공작 준비 중 4월 7일 일제경찰에 체포
- 징역 7년을 받고 해주형무소에 옥고를 치르다 27세 나이로 순국

### ○ 상훈 :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

## □ 유진만 (의경대원)



### ○ 생애·이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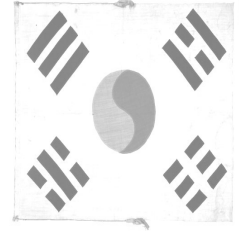
- 1912년 충남 연기 출생~1966년 사망
- 의경대원(1932년~미상)

### ○ 활약

- 1932년 1월 상해에서 김철, 이덕주, 유상근 등과 한인청년당을 조직하고, 임시정부 의경대원으로 활동
- 1932년 3월 김구의 지시로 조선총독을 비롯한 일본 요인 암살을 위해 이덕주와 함께 무기를 소지하고 국내 잠입하였으나, 공작 준비 중 4월 7일 일제경찰에 체포, 징역 6년 옥고를 치름

### ○ 상훈 :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

## □ 장 현 준 (의경대 간사)



### ○ 생애·이력

- 1909년 충북 음성 출생~1969년 사망
- 의경대 간사(1932. 2월~미상)

### ○ 활 약

- 장인 신조준, 처 신정숙과 함께 독립운동가 집안으로 1927년 전북 정읍에서 항일정신을 교육하다 1931년 11월 안창호 선생의 부름을 받고 상해로 망명, 1932년 임시정부 의경대 간사로 활동
- 1932년 윤봉길 의사 의거 후 일제 경찰의 대대적 검거 열풍 속에 안창호 등과 함께 체포, 옥고를 치름
- 안창호 선생의 극구 부인으로 그해 7월 25일 석방된 후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 김구 선생 비서 근무 등 독립운동 지속 전개

- 상 훈 :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

## □ 안 경 준 (의경대 간사)



### ○ 생애·이력

- 1896년 황해 신천 출생~1978년 사망
- 의경대 간사(1932년~미상)

### ○ 활 약

- 안중근 의사의 사촌동생으로 1918년 블라디보스톡에서 신채호 등과 독립운동을 하다 1922년 2월 상해로 이동해서 임시정부 가담, 김구 선생을 보좌하며 일제 밀정 처단에 앞장 섬
- 1932년 의경대 간사가 되어 1934년 김구 선생과 중국 장개석의 연락책임을 맡았고, 1940년대 중경시대 김구 주석 보좌 역할

- 상 훈 :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

## □ 김 석 (의경대원)



### ○ 생애·이력

- 1910년 전남 함평 출생~1982년 사망
- 의경대원(1930년~1931. 10. 31.)

### ○ 활약

- 임시정부 의경대원·법무장·군무장·재무장 등을 역임한 숙부 김철을 따라 1930년 의경대원이 되었고, 1933년 상해법정대학을 졸업
- 1932년 1월 김구의 지시로 조선총독 암살을 위해 이덕주·유진만을 국내에 밀파시키고, 4월에는 유상근·최홍식에게 日 관동군사령관 등을 암살하라며 밀파
- 1932년 4월 도시락형 폭탄 구입·전달 등 윤봉길 의사 의거 지원 혐의로 일제경찰에 체포, 재판 중 탈주하였다가 가중하여 옥고

- 상 훈 : 1995년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

## □ 문 석 홍 (경위대원 / 경무과 과원)



### ○ 생애·이력

- 1902년 제주 한림 출생~1949년 사망
- 경위대원(1941. 10. 7.~광복)
- 경무과 과원(1944. 6. 12.~광복)

### ○ 활약

- 1939년 일제에 선원으로 강제 징용되었다가 1940년 탈출하여 광복군으로 류린·구이린 전투 참가 및 카이펑 지하공작 수행
- 1945년 임시정부 주석 경위실장이 되는 한편, 국내 비밀공작 특파원 활동을 하다 8월초 일제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광복을 맞았지만, 1949년 5월 전상 후유증으로 순국

- 상 훈 : 1963년 대통령표창 / 1977년 건국포장  
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

## □ **김기형** (연통제 경무사장)



### ○ 생애·이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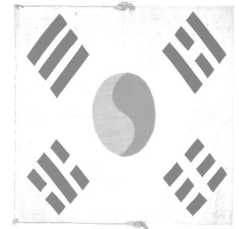
- 1887년 황해 안악 출생~1943년 사망
- 연통제 황해도 경무사장(1920년~미상)

### ○ 활약

- 1919년 3·1운동시 황해도 안악 지방의 만세시위를 주동하고 1920년 임시정부 지방조직인 연통제 경무사장으로 독립자금 모금
- 1926년 나창헌 등과 병인의용대를 조직하는 한편, 의정원 의원, 대한교민단 총무부장, 한국 노병회 이사 등 전방위적 독립운동

- 상훈 : 1968년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

## □ **최방열** (연통제 경감)



### ○ 생애·이력

- 1886년 함북 회령 출생~사망 미상
- 연통제 함경북도 독관부 경감(1920. 9. 29~미상)

### ○ 활약

- 가명 '최방훈'으로 활동하며 함경북도 독관부 연통제 경감으로서 독립운동 자금 모금 활동
- 1921년 7~8월 연통제 재건 기획 및 일제 관헌 공격에 필요한 총기를 보관하고 독립운동 자금 모금 중 체포되어 옥고를 치름

- 상훈 : 2013년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



## □ 윤 경 빈 (경위대장)



### ○ 생애·이력

- 1919년 평남 중화 출생~2018년 사망
- 경위대장(1945년~광복)

### ○ 활 약

- 1944년 일제의 강제 징집에서 탈출 후 1945년 경위대장으로 활동
- 광복후 1945년 11월 23일 임시정부 요인들을 경호하여 안전하게 귀국하도록 하였고, 이후 광복회 회장 등 친일청산을 위해 노력해 오다 임시정부 경찰 중 가장 최근에 사망

- 상 훈 :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

## □ 이 성 길 (경위대원)



### ○ 생애·이력

- 1912년 평북 구성 출생~1973년 사망
- 경위대원(1945. 2월~광복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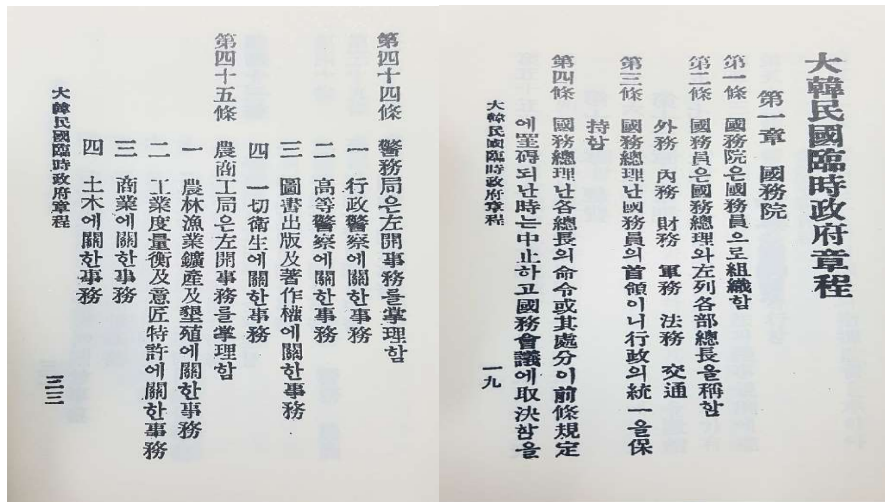
### ○ 활 약

- 1944년 5월 일본군에 강제징집 당하였다가 일본군 2명을 죽이고 탈출하여 광복군 제3지대에 입대
- 1945년 2월 임시정부 경위대원이 되어 윤경빈 대장 밑에서 임시정부 경비 및 요인 경호를 담당하다가
- 1945년 4월 광복군 토교대(土橋隊) 초대 대장으로 임명되어 총사령부 경비 및 기간간부를 양성하였고, 일본군내 조선인 탈출공작, 중국국민 선무공작 등 전개

- 상 훈 : 1963년 대통령표창 / 1980년 건국포장  
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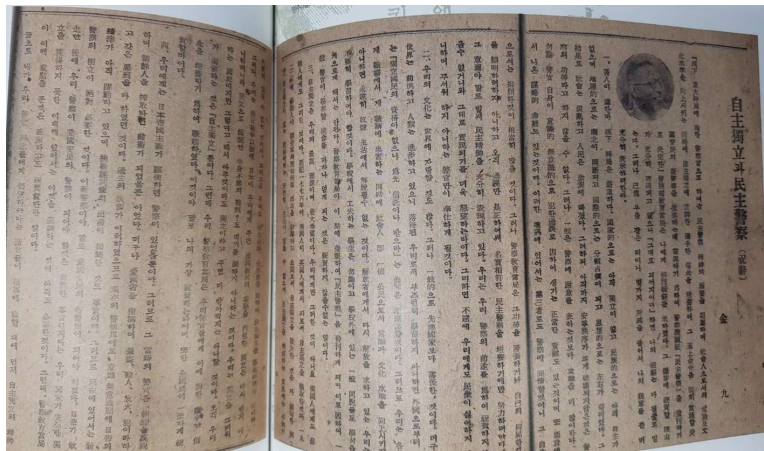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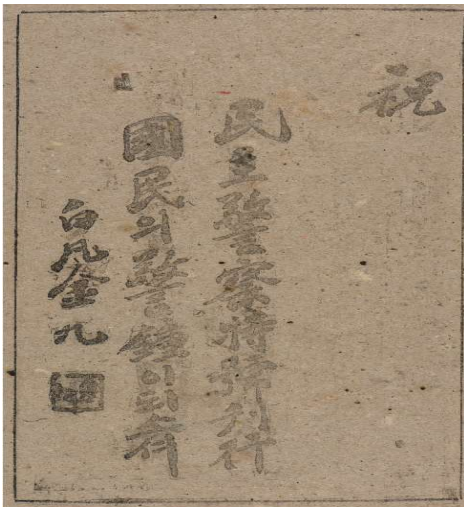
## 참고 4 기타 사진 자료 등

### □ 대한민국임시정부장정(1919.4.25. 제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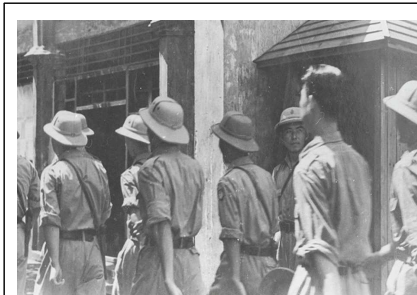


### □ 김 구 선생 휘호 및 축사

※ 경찰 교양지 「민주경찰」 창간(1947.6.20.) 기념



### □ 임시정부 경찰 복장 및 근무장소



<경위대 순찰>



<경위대 회의>



<경호원 복장>